

신학대학원 재학생의 사회봉사 참여 실태 및 복지사역에 대한 인식

I. 서론

일반적으로 교회는 예배, 선교, 친교, 교육, 봉사의 5대 사명을 띠고 있다. 이 중 하나인 봉사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며, 따라서 교회와 기독교인이 사회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성경의 고유한 정신은 성도들의 자발적 사회봉사와 일치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청지기로서의 직무 및 사회봉사의 실천이라는 것 역시 교회가 복지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이유이다. 성경은 개인의 소유는 단순히 관리대상이라는 가르침을 분명히 하고 있고, 사회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약속하고 있다(윤철원, 2004). 특히 사회봉사는 교회와 지역사회를 연결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한다. 교회는 사회봉사를 통해 사회를 향한 선교를 구체화하고 성도는 사회봉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실천하게 된다(김은수, 2002). 이와 관련하여 손용철(2002)은 교회는 지역사회를 떠나서는 어떠한 거점도 있을 수 없으며, 지역사회에 봉사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참 사명을 망각한 교회라고 주장한 바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는 사회적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2009년에 실시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조사에서 ‘한국교회를 신뢰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19.1%만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그런데 교회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야 할 사회적 활동에 대해서는 60.3%가 ‘봉사 및 구제활동’을 꼽아서 우리 사회가 교회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봉사 및 구제활동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0).

사실 한국교회의 복지사역은 천주교나 불교 등 타 종교에 비해서 여전히 양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적·질적 차원, 특히 재정적 지원의 측면에서는 타 종교에 비해 크게 미흡한 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08 한국의 종교현황’에 의하면, 종교단체 관련 사회 복지사업 주요 법인 372개 중 기독교 관련 법인이 194개로 52.15%를 차지하였고, 불교가 104개로 27.96%, 천주교 58개로 15.6%의 순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09). 고정환(2006)의 조사에서도 시설 수에 있어서는 기독교 893개 47.2%, 천주교 450개 23.8%, 불교 402개 21.2% 순서로 기독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러나 전체 종교계 지원금에서 차지하는 종단별 지원금의 비율은 천주교 47.3%, 기독교 28.7%, 불교 16.5%로 시설 수가 월등히 많은 기독교의 지원금이 시설 수가 절반에 불과한 천주교에 비해서 크게 적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만식(2007)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가입된 13개 교단의 680개 교

회를 대상으로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교회 전체 예산의 평균 10.6%가 사회봉사 및 구제에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구제 및 사회봉사 비용이 전체 예산의 평균 15%로 알려진 미국교회나 21%로 알려진 캐나다교회에 비해서(Lindner, 2000)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하겠다.

한국교회의 복지사업은 전문성에 있어서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교회의 복지사업은 보유 자원의 규모나 활동 분야 및 내용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단순 봉사나 구제와 같은 비전문적인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복지사업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지적되었다(박창우, 2007; 김수정, 2004). 이와 같은 전문성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는 전문 인력의 부족이 제시되는데, 이만식(2007)의 조사결과,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유급직원이 있는 교회의 비율은 14.1%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복지사업에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고자 노력해야 하는데, 특히 양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인적 자원 및 물질적 자원과 전문적 역량을 투입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그런데 교회가 이와 같은 노력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목회자의 인식이다(김수정, 2004). 교회가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복지사업이나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는 모두 목회자의 복지사업에 대한 인식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이다. 즉 목회자가 설교 등을 통하여 성도들의 사회봉사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도, 교회에서 구제 및 복지사업에 할애하는 예산의 비중, 복지사업 전담 직원의 고용 여부 등 관련된 내용 대부분이 주로 목회자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도 목회자의 성별, 연령, 목회경력, 복지의식, 리더십, 사회봉사 설교횟수, 신앙노선, 사회복지활동 참여, 사회복지 교육이나 훈련 경험 등이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박창우, 2007)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인식은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나 실제로 사회봉사에 참여한 경험 등은 목회자가 복지사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갖게 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정규 교육과정에는 교회의 복지사업에 대한 교육과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¹⁾. 또한 최소 4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졸업을 위한 기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총신대학교 학부와는 달리, 신학대학원에서는 경건훈련의 일환으로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단기 사회봉사활동을 제외하고는 학생들의 사회봉사 참여를 의무화하거나 격려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

1) 우리나라 신학대학원의 교육과정에서는 교회의 복지사업 관련 교육과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총신대학교, 고신대학교, 한세대학교, 감신대학교, 한신대학교 등은 목회학 석사과정이나 신학 석사과정에 관련 교과목이 전혀 개설되어 있지 않고, 서울신학대학교, 평택대학교, 안양대학교에는 소수의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유일하게 장로회신학대학교에만 다수의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다(손병덕, 2010).

라서 앞으로 목회자가 되었을 때 양질의 복지사역을 전개해나가기 위한 준비는 거의 학생 개인의 결정과 노력에 맡겨진 실정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사회봉사 참여 실태 및 복지사역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들의 사회봉사 참여와 복지사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향후 한국교회를 책임지는 목회자로 성장하였을 때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복지사역을 활성화시키며 그 질적 우수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 2, 3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수행되었다. 자료 수집은 연구목적 및 조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포하여 조사대상자가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한 후 바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은 2014년 5월 19일부터 6월 13일까지 이루어졌다. 총 213부의 설문지가 수집되어 분석에 활용되었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활용된 조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서 국내에서 수행된 일반 대학생 및 신학대학원생의 사회봉사와 관련 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입학 후 사회봉사 참여 여부, 사회봉사 기간 및 시간, 사회봉사 관련 교육 경험 등 사회봉사활동에 관련된 내용, 복지사역의 본질성, 적극성, 전문가 필요성 등 복지사역에 대한 인식, 복지사역에 할애하는 예산 비중, 한국교회 복지사역에 대한 전반적 평가, 복지사역 대상이나 수행형태 및 운영주체 등 복지사역 수행방안 등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ver.2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부호화 과정과 오류검토 작업을 거쳤으며, 빈도분석, 교차분석, t-test, ANOVA 등의 통계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학생이 188명으로 89.1%를 차지하는 반면 여학생은 23명으로 10.9%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신대원 재학생 중 남학생이 절대다수인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연령은 20대부터 50대 이상으로 다양했는데, 30대가 가장 많아서 55.9%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20대 34.6%, 40대 7.1%, 50대 2.3%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 45.9%, 2학년 30.6%, 3학년 23.5%로 1학년이 다소 많았다. 신대원 진학 전 학부 교육과정에서의 전공영역은 신학이 60%로 가장 많았고, 인문과학 14.8%, 사회과학 11.9%, 자연과학 4.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공학, 예체능, 기타 등도 소수 있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영역	응답 범주	사례수 (백분율)
성별 (N=211)	남	188 (89.1)
	여	23 (10.9)
연령 (N=211)	20대	73 (34.6)
	30대	118 (55.9)
	40대	15 (7.1)
	50대 이상	5 (2.3)
학년 (N=209)	1학년	96 (45.9)
	2학년	64 (30.6)
	3학년	49 (23.5)
학부 전공 (N=210)	신학	126 (60.0)
	인문과학	31 (14.8)
	사회과학	25 (11.9)
	자연과학	10 (4.8)
	공학	5 (2.4)
	예체능	5 (2.4)
	기타	8 (3.8)

조사대상자의 사회봉사 관련 실태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총신대 신대원에 입학한 이후 사회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35.8%, 즉 전체의 1/3 가량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회봉사 기간은 3개월 이하인 경우가 가장 많아서 40.7%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

은 2년 초과인 경우가 23.7%로 나타났다. 이어서 1년 초과에서 2년 이하 15.3%, 3개월 초과에서 6개월 이하 11.9%, 6개월 초과 1년 이하 8.5%의 순이었다. 2년 이상 꾸준히 봉사하는 학생들도 있으나 절반 이상은 6개월 이하 단기 봉사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당 봉사시간은 1시간 이하와 1시간 초과에서 2시간 이하가 동일하게 41.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2시간 초과에서 3시간 이하 9.1%, 3시간 초과 7.2%의 순이었다. 대다수가 주당 2시간 이하 봉사하는 것으로 봉사시간 역시 매우 짧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사회봉사에 참여하는 동기에 대해서 '이웃사랑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아서 41.3%로 나타났다. 이어서 '전도나 선교의 차원에서'라는 응답이 22.7%를 차지하였으며, '자신의 성장을 위하여'라고 답변한 경우는 5.3%로 소수였다. 그 외에 '기타'도 30.7%였는데, 기타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경건훈련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사회봉사가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 "받은 만큼 베풀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봉사활동을 통해 돌려받는 사랑이 크기 때문에" 등 다양하였다.

사회봉사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 22.7%, 만족 52.0%, 보통 24.0%, 별로 만족하지 않음 1.3%로 나타났다.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하는 경우가 전체의 3/4 가량을 차지하여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사회봉사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우가 42.2%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사회봉사 교육을 받은 기관은 총신대 신대원이 35.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학부 교육과정을 통해서 27.5%, 기독교 단체 14.7%, 교회 12.7%, 기타 9.8%의 순이었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사회봉사 관련 실태

영역	응답 범주	사례수 (백분율)
사회봉사 경험 (N=212)	있음	76 (35.8)
	없음	136 (64.2)
사회봉사 참여 기간 (N=59) (개월)	3개월 이하	24 (40.7)
	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	7 (11.9)
	6개월 초과 ~ 1년 이하	5 (8.5)
	1년 초과 ~ 2년 이하	9 (15.3)
	2년 초과	14 (23.7)
사회봉사 참여 시간 (N=55) (주당 시간)	1시간 이하	23 (41.8)
	1시간 초과 ~ 2시간 이하	23 (41.8)
	2시간 초과 ~ 3시간 이하	5 (9.1)
	3시간 초과	4 (7.2)
사회봉사 참여 동기 (N=75)	이웃사랑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 실천	31 (41.3)
	전도·선교의 차원에서	17 (22.7)
	자신의 성장을 위하여	4 (5.3)
	기타	23 (30.7)
사회봉사 만족도 (N=75)	매우 만족	17 (22.7)
	만족	39 (52.0)
	보통	18 (24.0)
	별로 만족하지 않음	1 (1.3)
	전혀 만족하지 않음	-
사회봉사 교육 경험 (N=204)	있음	86 (42.2)
	없음	118 (57.8)
사회봉사 교육기관 (N=86) *복수응답	총신대 신대원	36 (35.3)
	학부 교육과정	28 (27.5)
	교회	13 (12.7)
	기독교단체	15 (14.7)
	기타	10 (9.8)

복지사역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경험과 교육받은 기관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복지사역 전문교육을 받은 학생은 전체 응답자 205명 중 16명인 7.8%에 불과하였다. 이들이 교육을 받은 기관은 대학, 즉 학부 교육과정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기독교단체, 교회, 총신대학교 신대원, 기타의 순이었다.

<표 3> 복지사역 전문교육 경험 및 교육기관

영역	응답 범주	사례수 (백분율)
복지사역 전문교육 경험 (N=205)	있음	16 (7.8)
	없음	189 (92.2)
복지사역 전문교육 기관 (N=16)	총신대 신대원	2 (12.5)
	학부 교육과정	6 (37.5)
	교회	3 (18.8)
	기독교단체	4 (25.0)
	기타	1 (6.3)

신대원 재학생들의 복지사역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 먼저 ‘구제 및 사회봉사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다’ 라는 복지사역의 본질성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44.5%,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35.9%로 나타나서 80% 이상이 구제 및 사회봉사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별로 그렇지 않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각각 6.2%, 1.4%로 나타나서 적지 않은 신학생들이 구제 및 사회봉사가 교회의 본질적 사명임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회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30.3%, 그렇다 43.3%, 보통이다 22.1%, 별로 그렇지 않다 3.4%, 전혀 그렇지 않다 1.0% 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교회가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경우가 70%를 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소수였다. 교회가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인식은 구제 및 사회봉사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는 인식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교회에 복지사역을 전담할 유급 복지전문가가 필요하다’ 는 전문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21.2%, 그렇다 27.4%로 나타나서 동의하는 경우가 절반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별로 그렇지 않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경우도 각각 13.5%, 4.8%로 적지 않은 수준이었다. 조사대상자들에게 교회에 복지사역을 전담할 유급 복지사역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표 4> 복지사역에 대한 인식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구제 및 사회봉사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다. (N=209)	93 (44.5)	75 (35.9)	25 (12.0)	13 (6.2)	3 (1.4)
2) 교회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N=208)	63 (30.3)	90 (43.3)	46 (22.1)	7 (3.4)	2 (1.0)
3) 교회에 복지사역을 전담할 유급 복지전문가가 필요하다. (N=208)	44 (21.2)	57 (27.4)	69 (33.2)	28 (13.5)	10 (4.8)

조사대상자들이 교회가 복지사역에 교회 전체 예산의 어느 정도를 할애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10% 초과에서 20% 이하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아서 전체의 39.7%를 차지하였다. 다음은 5% 초과에서 10% 이하로 26.8%였고, 이어서 20% 초과에서 30% 이하가 22.7%로 나타났다. 복지사역에 전체의 5% 이하의 적은 예산을 할애해야한다는 경우도 6.7%로 나타났다.

<표 5> 적절한 복지사역 예산 비율

영역	응답 범주	사례수 (백분율)
복지사역 예산 (N=194)	5% 이하	13 (6.7)
	5% 초과 ~ 10% 이하	52 (26.8)
	10% 초과 ~ 20% 이하	77 (39.7)
	20% 초과 ~ 30% 이하	44 (22.7)
	30% 초과	8 (4.1)

한국교회의 복지사역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 대해서 1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질문한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1점에서 10점까지 매우 다양한 점수로 평가하였는데, 3점에서 4점으로 평가한 경우가 가장 많아서 36.3%, 이어서 5점에서 6점이 26.1%, 7점에서 8점이 18.8%, 1점에서 2점이 15.9%, 9점에서 10점이 2.8%의 순이었다. 응답자의 3/4가량이 한국교회 복지사역을 6점 이하의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한국교회 복지사역에 대한 평가

영역	응답 범주	사례수 (백분율)
복지사역에 대한 평가 (N=207)	1점~2점	33 (15.9)
	3점~4점	75 (36.3)
	5점~6점	54 (26.1)
	7점~8점	39 (18.8)
	9점~10점	6 (2.8)

복지사역 대상이나 수행형태 및 운영주체 등 복지사역 수행의 적절한 방안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의견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복지사역 수행 방안

영역	응답 범주	사례수 (백분율)
복지사역 대상자 (N=209)	교인 위주	9 (4.3)
	지역주민 위주	25 (12.0)
	교인 및 지역주민 포함	140 (67.0)
	특정 대상자	26 (12.4)
	기타	9 (4.3)
복지사역 수행형태 (N=208)	현금·물품 직접 제공	27 (13.0)
	인력 직접 제공	80 (38.5)
	기존 기관·시설 연계	69 (33.2)
	복지시설 설립·위탁	21 (10.1)
	기타	11 (5.3)
복지사역 운영주체 (N=207)	교역자	4 (1.9)
	당회	28 (13.5)
	교회 내 복지사역 전담부서	122 (58.9)
	사회복지전문가	37 (17.9)
	기타	16 (7.7)

먼저 복지사역의 대상자로는 교인과 지역주민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아서 67.0%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노인, 장애인, 새터민 등 특정한 대상자 12.4%, 지역주민 위주 12.0%, 교인 위주 4.3%의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사역을 수행하는 형태에 있어서는 성도들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인력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아서 38.5%, 이어서 기존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과의 연계 33.2%, 현금이나

물품의 직접적 제공 13.0%, 사회복지시설 설립이나 위탁 운영 10.1%의 순이었다. 교회 내에서 어느 기관이나 부서가 교회의 복지사역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교회 내 복지사역 전담부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서 58.9%에 달했으며, 이어서 사회복지 전문가 17.9%, 당회, 13.5%, 기타 7.7%, 교역자 1.9%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의 구체적인 내용은 집사회, 복지사역 전문가를 포함한 전담부서, 복지사역을 연구한 교역자, 전체 성도 등 다양하였다.

신학생의 학년에 따른 사회봉사 참여 경험 여부를 <표 8>에 제시하였다. 1, 2, 3학년에서 모두 사회봉사 경험이 있는 학생이 35% 내외로 학년 간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총신대학교 신대원 교육과정에 재학생들의 사회봉사 참여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별다른 장치도 확보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표 8> 학년에 따른 사회봉사 경험

사회봉사 참여 경험	학 년			계
	1학년	2학년	3학년	
있음	35(36.8)	22(34.3)	17(34.7)	74(35.6)
없음	60(63.2)	42(65.6)	32(65.3)	134(64.4)
계	95(45.7)	64(30.8)	49(23.6)	208(100.0)
$\chi^2 = .123, \quad p = .940$				

학년별로 사회봉사 교육에 참여한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사회봉사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1학년이 가장 높아서 44.6%, 이어서 3학년 40.0%, 2학년 38.1%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총신대학교 신대원에는 재학생들에게 사회봉사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체계가 마련되거나 학생들이 관련 교육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9> 학년에 따른 사회봉사 교육 참여

사회봉사 참여 경험	학 년			계
	1학년	2학년	3학년	
있음	41(44.6)	24(38.1)	18(40.0)	83(41.5)
없음	51(55.4)	39(61.9)	27(60.0)	117(58.5)
계	92(46.0)	63(31.5)	45(22.5)	200(100.0)
$\chi^2 = .699, \quad p = .705$				

신학생들의 학년에 따라 복지사역에 대한 인식이나 복지사역에 할애하는 적절한 예산 비율에 대한 의견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다음의 <표 10>에 제시하였다. 복지사역 본질성, 적극성, 전문가 필요성 등 인식에 있어서 1학년은 평균 3.8262점, 2학년은 3.8385점, 3학년은 4.0069점으로 나타나서 1, 2학년에 비해 3학년의 복지사역 인식 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다. 복지사역 예산에 있어서는 1학년 평균 20.3218%, 2학년 16.5263%, 3학년 19.7292%로 1학년이 가장 많은 예산을 할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이어서 3학년, 2학년의 순이었다. 그러나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아니다.

<표 10> 학년에 따른 복지사역 인식 및 예산 비율

봉사 기간/시간	학 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	p
복지사역 인식	1학년	94	3.8262	.83491	.859	.425
	2학년	64	3.8385	.86269		
	3학년	48	4.0069	.70288		
복지사역 예산	1학년	87	20.3218	10.33001	2.973	.054
	2학년	57	16.5263	9.21587		
	3학년	48	19.7292	7.69841		

사회봉사에 참여한 경험 여부에 따라서 복지사역에 대한 인식이나 예산 비중에 대한 생각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회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의 복지사역 인식 평균점수는 4.0526점인 반면 그러한 경험이 없는 학생은 3.7677점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이다. 또한 복지사역 예산에 있어서도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신학생들의 평균 적정 예산 비율은 21.3521%로 높은 반면에 그러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17.6721%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다.

이로써 사회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서 복지사역의 본질성, 적극성, 전문가 필요성 등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하고, 더 많은 예산을 복지사역에 할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사회봉사 경험에 따른 복지사역 인식 및 예산 비율

복지사역 인식/예산	사회봉사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t	p
복지사역 인식	있음	76	4.0526	.73847	2.458	.015
	없음	132	3.7677	.84100		
복지사역 예산	있음	71	21.3521	9.41594	2.632	.009
	없음	122	17.6721	9.33618		

사회봉사 교육에 참여한 경험 여부에 따라서 복지사역에 대한 인식이나 예산 비중에 대한 생각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 결과를 다음의 <표 12>에 제시하였다. 사회봉사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신학생의 복지사역 인식 평균점수는 3.9686점이고, 사회봉사 교육 참여 경험이 없는 학생의 평균점수는 3.8087점이었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의 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다. 복지사역 예산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교육에 참여한 신학생들의 평균 복지사역 예산 비율이 18.0375%,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19.6571%로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학생들의 예산 비율이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한 이러한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이로써 사회봉사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복지사역에 대한 인식이나 복지사역 예산 비율에 대한 견해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하겠다.

<표 12> 사회봉사 교육 경험에 따른 복지사역 인식 및 예산 비율

복지사역 인식/예산	사회봉사 교육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t	p
복지사역 인식	있음	85	3.9686	.75352	1.377	.170
	없음	115	3.8087	.85277		
복지사역 예산	있음	80	18.0375	7.88918	-1.137	.257
	없음	105	19.6571	10.71109		

마지막으로 복지사역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경험 여부에 따라서 복지사역에 대한 인식이나 예산 비중에 대한 견해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복지사역 전문교육을 받은 신학생

의 복지사역 인식 평균점수는 4.3542점, 그렇지 않은 신학생의 평균점수는 3.8245점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다. 복지사역 예산 비중에 있어서는 전문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22%, 그렇지 않은 경우 18.8466%로 나타나서 전문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더 많은 예산을 복지사역에 할애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표 13> 복지사역 전문교육 경험에 따른 복지사역 인식 및 예산 수준

복지사역 인식/예산	복지사역 전문교육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t	p
복지사역 인식	있음	16	4.3542	.63792	2.622	.009
	없음	188	3.8245	.78567		
복지사역 예산	있음	15	22.0000	6.76123	1.243	.216
	없음	176	18.8466	9.61691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총신대학교 신대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사회봉사 참여 경험, 사회봉사 기간 및 시간, 사회봉사 교육 경험 등 사회봉사활동과 관련된 실태와 복지사역에 대한 인식 및 적절한 복지사역 예산 비율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사회봉사, 사회봉사 교육, 그리고 복지사역 전문교육 경험 여부와 복지사역 인식 및 예산 비율의 관련성에 대해서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 중 신대원 입학 후 사회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35.8%, 전체의 약 1/3 가량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봉사기간은 6개월 이하의 단기봉사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1년 이상 장기적으로 봉사하는 경우도 30% 이상으로 나타났다. 봉사시간은 짧은 편으로 80% 이상이 주당 2시간 이하 봉사하였다. 사회봉사에 참여한 동기는 이웃사랑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하는 경우가 41.3%로 가장 많았고, 전도나 선교의 차원에서 봉사하는 경우가 22.7%였다. 기타도 30.7%였는데, 주로 경건훈련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사회봉사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으로 약 75%가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하였다. 사회봉사 교육을 받은 경우는 전체의 42.2%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였고, 교육받은 기관은 총신대 신대원이 35.3%, 학부 교육과정 27.5%, 그 외에 기독교 단체나 교회 등으로 나타났다. 복지사역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학생은 7.8%에 불과하였고, 교육받은 기관은 학부 교육과정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기독교단체, 교회 등이었다.

복지사역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80% 이상이 구제 및 사회봉사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는 인식에 동의하였으나 8% 가까이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적지 않은 신학생들이 구제 및 사회봉사가 교회의 본질적 사명임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회가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70% 이상이 동의하였다. 교회에 복지사역을 전담할 유급 복지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약 50%만이 동의하여 복지사역 전문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신학생들 사이에 널리 공유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회 전체 예산에서 복지사역에 할애하는 예산의 적정 비율은 1/3이상이 10% 이하의 적은 수준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10% 초과에서 20% 이하가 약 40%, 20% 초과가 1/3가량을 차지하였다.

학년에 따라서 사회봉사 경험, 사회봉사 교육 경험, 복지사역 인식 및 예산 비율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봉사, 사회봉사 교육, 복지사역 전문교육 경험에 따라서 복지사역 인식 및 예산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사회봉사 경험이 있는 경우 복지사역 인식이 강하고, 복지사역에 할애하는 적절한 예산 비율을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봉사 교육 여부에 따른 복지사역 인식이나 예산 비율에 차이는 없었고, 복지사역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복지사역에 대한 인식은 강하였으나 예산 비율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총신대학교 신대원 재학생들의 사회봉사 활성화와 복지사역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를 통하여 총신대 신대원 재학생들 중 신대원 입학 이후 사회봉사에 참여한 경험에 있는 학생이 35.8%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총신대 신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사회봉사 참여 경험에 있는 학생이 46.2%로 나타난 것(양혜원, 2012)과 비교할 때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현재 총신대 신대원에서는 경건훈련의 일환으로 1학년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과정을 거친 2, 3학년 학생들이 55% 가량 포함된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35.8%만이 사회봉사에 참여한 경험이라고 응답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하겠다. 이에 대하여 가능한 추론은 경건훈련의 일부로 수행되고 있는 현행 사회봉사활동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봉사의 내용이나 연간 2-3회 단기적으로 진행되는 봉사활동 방식과 횟수 등이 참여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봉사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봉사에 대한 중요성·필요성 인식 이전에 자신이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인식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현행 사회봉사의 문제점을 잘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사회봉사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우도 42.2%의 낮은 비율로 나타났고, 특히 총신대학교 신대원에서 사회봉사 교육을 받은 경우는 36명으로 전체의 약 15% 수준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역시 경건훈련의 일부로 진행되는 사회봉사활동 과정에서

사회봉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교육의 양적·질적 수준이 미흡함을 드러내는 결과라고 하겠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사회봉사활동이나 복지사역 전문교육에 참여한 경험에 따라서 신학생들의 복지사역 인식이나 예산 비중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사회봉사에 참여한 경험이나 복지사역에 대한 전문교육이 복지사역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복지사역에 적정한 예산을 할애하려는 자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따라서 신대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봉사활동과 관련 교육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먼저 신대원 재학생들의 사회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사회봉사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봉사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는데, 총신대학교 학부에서 40시간의 사회봉사를 졸업의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신대원 역시 최소한 4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경우, 최소 한 학기 동안의 꾸준한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사회봉사 참여를 의무화하는 현 수준에서 벗어나서 신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겠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학생들의 개인적 욕구나 특성에 부합하는 봉사기관을 연계하고, 봉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문제해결을 도울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며, 우수한 봉사 사례를 발굴하여 널리 알리고 포상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더불어 사회봉사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겠다. 봉사대상자들의 특성이나 봉사활동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다루는 오리엔테이션 수준의 교육이 아니라 봉사자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확립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와 기독교인의 사회봉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심층적인 사회봉사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총신대학교 신대원 재학생들의 복지사역에 대한 인식이 약한 수준이고, 적절한 예산 비중도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 구제 및 사회봉사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는 것에 매우 그렇다 혹은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80.4%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기존 연구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예컨대, 1999년에 김미숙·홍석표·이만식·유장춘이 기독교 7개 교단 소속 목회자 4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85.9%가 사회복지활동을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07년 이만식의 조사에서는 사회봉사 또는 사회복지활동이 교리상 신앙생활의 본질적 요소라는 데에 전적으로 동의하거나 동의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2.6%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학년이 올라가도 사회봉사 경험이나 사회봉사 교육, 복지사역 전문교육 등에 대한 참여율이 증가하지 않고, 복지사역에 대한 인식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총신대학교 신대원의 교육과정이 신학생들의 사회봉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거나 교회 복지사역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장 시급한 것은 신대원의 교육과정에 사회봉사 또는 복지사역에 대한 교과목이 개설되도록 하는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일부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또는 신학 석사과정에 복지사역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고, 외국의 경우에는 대다수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생들을 위하여 다양한 복지사역 교과목을 개설하여 교육하고 있다(박창우, 2008, 181). 따라서 총신대학교 신대원에서도 정규 교육과정에 관련 교과목을 신설하여 예비목회자들이 교회 복지사역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사역방향 및 구체적 사역방안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의 봉사활동 기간이나 시간이 지나치게 짧은 초단기 봉사이거나 또는 2년 이상 장기봉사로 양분되고, 봉사동기도 이웃사랑의 실천이나 전도·선교의 차원에서 봉성한 경우가 있는 반면에 비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진정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꾸준히 봉사하는 경우와 경건훈련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일회성 봉사에 참여한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서로 다른 맥락의 사회봉사는 기간이나 동기 뿐 아니라 그 내용이나 결과 등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후속연구를 수행한다면 신대원 학생들의 사회봉사 실태와 복지사역에 대한 인식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기독교윤리실천운동(2010). 『2009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섬김 보고서』.
- 고경환(2006). “한국종교계의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실태분석.” 『보건복지포럼』 115, 65-73.
- 김미숙·홍석표·이만식·유장춘(1999). 『종교계의 사회복지활동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윤철원(2004). “자원봉사(Volunteerism)의 성서적 함의(含意)-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교회사회사업』 2, 221-245.
- 김수정(2004). “기독교 신학생들의 교회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및 지원욕구-영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 『신학과 목회』 22, 289-315.
- 김은수(2002).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선교 실태와 과제” . 『인문과학 논총』 22, 49-65.
- 문화체육관광부(2009). 『2008 한국의 종교현황』.
- 박창우 (2007). “교회사회복지활동 결정요인에 따른 실천모형 개발-생태체계이론에 근거하여” .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 박창우 (2008). “교회사회복지활동 결정요인에 따른 실천모형 개발” . 『신앙과 학문』 13(2), 157-188.
- 손병덕(2010). 『교회 사회복지』. 서울: 학지사.
- 손용철(2002). “기독교사회복지 정체성에 대한 연구” . 『그리스도신학대학교 교수논문집』 265-280.
- 이만식(2007). “한국 기독교사회복지의 실태.”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편. 『한국기독교 사회복지총람』. 서울: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787-828.
- Lindner, E. W. (2000). *Yearbook of American and Canadian Churches 2000: Religious Pluralism in the New Millennium 68th Edition*. NY: National Council of Christ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Yang, H. W. (2012). “Participation in Social Service Activities Among Chongshin University Students: A Case of Students in Theology and Social Welfare Departments.” *Chongshin Review*, 17, 157-176.

신학대학원 재학생의 복지사역에 관한 인식의 의미

이상무 평택대학교 교수

총신대학교 양혜원 교수님의 ‘신학대학원 재학생의 사회봉사 참여 실태 및 복지사역에 대한 인식’을 읽으며, 글의 주제와 내용에서 총신대학교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점이 반가웠습니다. 특히 미래 전문사역자들의 복지사역에 관한 인식이라는 주제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서론을 읽어 내려가면서 몇 가지 평소에 가진 의문들이 떠올랐습니다. 저자께서 지적하셨듯이 현재 우리 사회의 교회에 대한 신뢰가 위기적 수준에 도달하였고, 교회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교회의 적극적인 봉사 및 구제활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의 한 명으로서 이러한 논리에 동의하면서, 이러한 논리가 좀더 보편적인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봉사와 구제가 교회의 본질인가?

둘째, 현재 교회가 처한 위기의 원인이 교회의 적극적인 봉사 및 구제활동의 부족 때문인가?

셋째, 현재 우리 사회 교회들의 봉사와 구제활동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만약 부족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봉사와 구제활동을 해야 하는가?

물론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에 열심히 참여하는 교회에서조차 봉사가 교회의 본질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례를 개인적으로 목도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자를 포함한 더 많은 연구자들에게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더 나은 답변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봉사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복지사역 인식과 예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분석결과를 읽으며,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문구가 새삼스럽게 떠올랐습니다. 물론 인과론적인 측면에서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사회봉사 경험이 학생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전제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저자께서는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결론 부분에서 학생들의 사회봉사 경험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좋은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총신대뿐만 아니라 많은 신학대학원에서 이러한 제언들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주제와 체계적인 설문 내용과 분석으로 논문을 읽는 시간이 매우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